



모의논술고사 문제 및 해설

• 인문계열 •

1. 모의논술고사 문제 및 해설 [인문계열]

❓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도덕적 판단의 원천과 관련하여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시오.
(700±70자, 40점)

❓ 문제 2

제시문 [사]의 아이히만의 자기변호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다음의 두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800±80자, 60점)

- ▶ 조건 1: 문제1의 한 입장과 제시문 [마], [바]를 근거로 활용할 것.
- ▶ 조건 2: 문제1의 두 입장 중 제시문 [바]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장을 택하여 논할 것.

제시문 [가]

시리아 어린이들이 받고 있는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다. 미국 온라인매체 버즈피드 등은 터키 기자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세계에 시리아 아이들의 고통을 전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에 담긴 것은 아디 후데아라는 4살 여자아이다. 후데아는 두 손을 들고 있고, 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터키 기자 오스만 사울리는 터키와 인접한 시리아의 난민촌에서 이 사진을 찍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자, 아이는 총을 든 것으로 알고 두 손을 번쩍 든다. 카메라마저 총기로 알게 만든, 어린 나이에 낯선 사람 앞에서 살려달라는 뜻으로 손을 들게 만든 것은 처참한 내전이였다. 사울리는 난민촌에서 찍은 아이들 사진이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을 통해 더 잘 볼 수 있다. 죄 없는 아이들은 감정을 더 잘 보여준다.”

터키 신문에 실렸던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세계에 퍼져나갔다. 나디아 아부 사반이라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여성 사진기자가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렸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일주일 새 1만 1000회 이상 리트윗됐다.

제시문 [나]

세계 인권 선언은 “인류 가족 모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를 일구는 기초”이므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인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 모든 사람에게는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리권을 가진 자국의 사법 재판소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5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주와 의료와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실업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노령이나 불가항력적인 여타의 상황 속에서 겪는 생계 곤란을 당한 경우에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머니와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적출이든 서출이든 관계 없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시문 [다]

흠은 도덕적 선악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즉 그는 도덕적 선악이 지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是認)의 감정과 부인(否認)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선악은 도덕적 판단 대상인 사람의 행위나 품성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인과 부인의 감정, 즉 도덕적 감정에 있다. 이러한 도덕적 감정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도덕적 감정이 개인의 주관성을 넘어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까닭은 공감(sympathy) 덕분이다. 흠에 따르면, 공감이란 우리가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하도록 해 주는 자연적 성향이다.

공감은 우리의 경험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을 느끼는 타인을 볼 때 우리는 그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관념을 갖게 되고, 이 관념이 우리 내부에서 타인과 같은 감정을 일으킨다.

제시문 [라]

인간은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이중적 존재이므로 의욕과 도덕 법칙이 필연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명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덕 법칙은 명령 중에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명령, 즉 정언 명령의 형태로 제시

된다. 어떤 조건이 붙은 명령, 예컨대 “네가 장기적 이익을 증진하기를 원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가언 명령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가언 명령에서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법칙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의무의 형식으로 부과되고,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도덕 법칙으로서 정언 명령의 핵심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다. 만약 어떤 준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 준칙은 각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에 불과하다.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원리만이 의지를 규정해야 하고, 우리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 행위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입법하는 자이며 우리 자신이 세운 법률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자율적 주체이다. 신 및 기타의 힘, 충동, 권위 있는 문헌, 부모의 요구, 사회 관습, 국가의 법률 등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행위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모든 외적 힘들은 의지의 타율적 규정들에 불과하며 타자가 부여한 우리 행동의 원인들이다.

제시문 【마】

스탠리 밀그램은 “나는 알고 싶었다. 왜 사람들이 비인간적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는지, 왜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는지, 왜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라며 실험을 고안했다.

1963년 그는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했다.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교사 역할을, 다른 한쪽은 학생 역할을 맡기고, 학생에게는 암기해야 할 단어를, 교사에게는 테스트할 문제들을 주었다. 그리고 교사는 문제를 틀린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한 후 오답이 나올 때마다 전압을 높이도록 했다. 칸막이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다. 실험이 시작되자 칸막이 너머에서는 비명과 욕설, 심지어 불길한 침묵이 계속됐지만 실험은 강행되었다. 실험 주관자는 망설이는 교사들에게 계속 지시대로 할 것을 종용했다. 실험 팀은 원래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도중에 실험을 거부하리라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원자의 65%가 권위자의 지시를 끝까지 따랐다.

밀그램에 따르면 인간은 권위적 체계 속에서 이른바 대리자적 상태(agentic state)에 들어간다. 이때 인간은 자신을 권위에 순응하고 권위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자신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자기 합리화로 이어진다.

제시문 【바】

소로(Thoreau, H. D., 1817~1862)는 시민 불복종의 선구자로 유명하다. 그의 저서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그가 죽은 뒤 간디와 영국의 노동 운동가들, 마틴 루서 킹과 같은 인권 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소로는 불의한 국가 권력과 법률에 대해 불복종함으로써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을 거부하면서도 폭력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지금도 전 세계인의 양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기초로 끊임없이 성찰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소로는 양심의 법이 정부의 법보다 한층 고차원의 법이며, 두 법이 충돌한다면 시민은 정부의 법보다 양심의 목소리에 복종하는 게 의무라고 주장했다. 정당하지 않은 법이 존재한다면 시민은 세금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불복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동료 시민에게 잘못된 것을 자각시켜, 올바르게 정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제시문 [사]

아이히만은 독일이 패전한 후에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 재판을 참관한 아렌트(Arendt, H., 1906~1975)는 자신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이히만이 재판에서 칸트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변호했다고 쓰고 있다. 아이히만은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해야 한다.”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의무에 대한 칸트의 가르침에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다음은 재판에서 검사와 아이히만이 나눈 문답 중 일부이다.

검사 : 피고인의 본명은 칼 아돌프 아이히만, 1939년에서 1945년까지 나치스 계획의 집행 책임자로서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 제가 본 피고인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대인 이민자들을 위해 직업학교도 세우는 등 개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검사 : 그렇다면 왜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습니까?

아이히만 : 저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저의 임무였으며,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검사 :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남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요?

아이히만 : 제가 만약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1. 출제 의도

1. 문제1은 도덕적 판단의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2. 도덕적 판단의 뿌리를 감정에서 찾는 입장과 이성에서 찾는 입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자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3. 문제 해결의 요점은 ① 각 제시문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범주로 나누고 두 입장의 차이를 대조하여 서술할 수 있는가, ② 각 제시문에서 주장의 핵심을 담은 주요 개념을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입장의 차이를 얼마나 명확하게 서술했는가이다.
4. 문제2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아이히만의 태도가 지닌

문제점을 찾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문제2에서는 제시된 조건을 잘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했는가 가장 중요하다. 아이히만의 자기변호를 공감능력의 부족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의무론적 윤리의 관점에서 아이히만의 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따라서 공감을 토대로 아이히만의 변호를 설명했다면 문제의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 칸트의 도덕론은 외부의 법이나 타율적 법칙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는 것,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이성적 원리에 대한 자율적 복종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출전 및 교과서 연관성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 적용 교육과정 | 도덕과, 사회과 | | |
|---------|------------------|--|--------|
| 관련 성취기준 | 과목명 : 도덕과 | | |
| | 성취기준 1 | 공통 교육과정의 '도덕'에서 학습한 도덕적 판단과 실천 능력을 토대로 학생들의 윤리적 인식과 탐구 능력을 심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제기되는 제반 윤리적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생활과 윤리 |
| | 성취기준 2 | 한국을 비롯한 동·서양의 주요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바람직한 윤리관을 정립하도록 한다. 현대 사회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깊이 성찰하고, 이를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윤리와 사상 |
| | 과목명 : 사회과 | | |
| | 성취기준 3 |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 통합 사회 |

나) 자료 출처

| 참고자료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년도 | 쪽수 |
|----------|--------|-----------|---------|------|----------|
| 고등학교 교과서 | 통합사회 | 육근록 외 6인 | 동아출판 | 2020 | 230 |
| | 생활과 윤리 | 정창우 외 11인 | 미래엔 | 2018 | 197 |
| | 윤리와 사상 | 변송용 외 10인 | 천재교과서 | 2021 | 133, 138 |
| | 생활과 윤리 | 차우규 외 5인 | 금성출판사 | 2020 | 111 |
| | 생활과 윤리 | 조성민 외 6인 | 비상교육 | 2018 | 198 |
| | 고전과 윤리 | 박병기 외 5인 | 전라북도교육청 | 2021 | 41 |



3. 예시 답안

제시문 해설

- 제시문 【가】는 통합사회 교과서에 실린 사진에 신문 기사의 설명을 추가한 글이다. 카메라 앞에서 겁을 잔뜩 먹고 손을 든 아이의 사진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SNS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감정적 공감이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판단의 원천이라는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제시문 【나】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실린 세계 인권 선언의 일부이다. 약자와 아동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것은 그들이 동정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임을 세계 인권 선언문은 보여준다. 이것은 보편적인 이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도덕적 판단의 원천을 설명하는 칸트와 맥을 같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 제시문 【다】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실린 흄의 도덕론에 대한 설명이다. 흄은 도덕적 선악이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과 관련된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흄에게 도덕적 판단의 보편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감의 성향에 기초하고 있다.
- 제시문 【라】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실린 칸트의 도덕론에 대한 설명에 칸트의 글을 덧붙여 재구성한 글이다. 칸트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지닌 준칙의 준수에서 도덕적 판단의 뿌리를 찾고 있다. 이러한 준칙이 감정이나 관습이 아니라 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제시문 【마】는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을 소개한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일부이다. 밀그램은 실험을 통해 인간은 권위자 혹은 권력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성향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권위자에 대한 복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 심리와 연결된다는 점을 제시문은 지적하고 있다.
- 제시문 【바】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실린 소로의 불복종론에 대한 글이다.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과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대비하고 후자가 진정한 도덕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불의한 사회의 하수인이 되는 위험성을 피하려면 옳은 것에 대한 지속적 성찰이 필요하다.
- 제시문 【사】는 고전과 윤리 교과서의 일부로 유대인 학살이란 혐의로 기소된 아이히만의 재판을 소개하고 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자신은 칸트의 가르침에 따라 복종해야 할 의무에 따랐을 뿐이라 자신을 변호한다. 즉 그는 권력자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에 대한 복종을 동일시하고 자신은 명령 받은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학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 문제 1

- ㉠ 제시문을 도덕적 판단의 원천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했는지 여부: 감정/이성
- ㉡ 제시문을 **【가】【다】/【나】【라】**로 나누었는지 여부

※ 평가의 주안점

- ㉠ **【가】**는 난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도덕의 뿌리를 감정으로 본 **【다】**와 연결됨
- ㉡ 세계 인권 선언이 칸트의 의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는가 중요
⇒ 동정할 만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성적 판단이 인권 선언문의 기본 정신이라는 점
- ㉢ 제시문의 핵심어를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했는지 여부

▶ 문제 2

- ㉠ 마를 이용하여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했는지 여부 ⇒ 책임 회피
- ㉡ ‘이성’의 입장을 택하고 이를 **【바】**와 연결해서 아이히만의 문제점을 지적했는지 여부
⇒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 후자는 보편타당한 준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의무론과 유사
- ㉢ 아이히만의 대응이 비도덕적인 이유:
⇒ 칸트의 정언명령 왜곡: 외부의 법에 대한 복종이 도덕적 행동이라는 인식
⇒ 책임 회피: 자신을 권위자의 도구로 간주. 책임을 명령자에게 돌림으로써 책임 회피

※ 평가의 주안점

- ㉠ 제시된 조건을 잘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했는가.
⇒ 공감의 입장을 토대로 아이히만의 변호를 설명했다면 문제의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한 것
- ㉡ 제시문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답안에 반영했는가.

예시 답안

▶ 문제 1

도덕적 판단의 원천을 이성으로 보는가, 감정(공감)으로 보는가에 따라 제시문을 **【가】【다】/ 【나】【라】**의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가】와 **【다】**는 도덕적 판단의 원천을 감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가】**는 손을 든 아이의 사진을 보며 사람들이 난민촌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카메라 앞에서 손을 든 아이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공감은 전쟁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는 보여준다. **【다】**는 도덕적 감정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흠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흠은 도덕적 판단이 이성이라 아니라 감정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자신의 협소한 주관성의 차원을 넘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도덕적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나】와 【라】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서 도덕적 판단의 뿌리를 찾는 입장이다. 【나】는 세계 인권 선언의 주요 항목을 소개하며 이런 항목들이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적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원칙들을 인권 선언의 각 항목이 담고 있음을 【나】는 보여준다. 【라】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명령은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편타당성을 지니기 때문에 타당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라】 또한 도덕적 판단의 원천을 이성에서 찾는 입장에 해당한다. (723자)

▶ 문제 2

【사】의 아이히만은 유태인 학살의 책임을 부인하고 자신은 임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기변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첫째,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따랐을 뿐이라는 아이히만의 태도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칸트의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했기에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이히만이 따른 것은 국가의 타율적 명령이지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이 아니다. 【라】의 칸트에 의하면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기초하여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원리를 따를 때 도덕적 행위가 성립한다. 【바】에서 강조하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도 칸트의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아이히만은 이러한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학살을 명하는 외부의 법에 순응하여 타율적으로 행동하였다. 【라】,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외부의 법에 순응한 아이히만의 태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아이히만의 자기변호는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통해 책임을 회피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명령 받은 일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의 실험이 잘 보여주듯 권위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간주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히만은 【마】의 실험 참가자들처럼 자신이 주체성을 가진 존재임을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명령자에게 돌림으로써 책임이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한다. 자신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점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847자)